



문기경(왼쪽에서 네번째) 대표가 완도 본사를 방문한 홍콩 바이어들에게 해조국수 등 제품들을 설명하고 있다. <완도바다식품 제공>

툷·다시마 원료 한국 최초 해조국수 출시

전남 산단 우수기업을 가다

<4> 완도바다식품

㈜완도바다식품은 우리나라 최초 해조국수를 개발한 벤처기업이자 이노비즈(기술혁신형) 기업이며, 농공상 융합형 유망 중소 기업이다.

완도군 완도를 가용리 완도농공단지에 자리잡은 이 회사는 미역·다시마·툷·김 등 해조류, 전복·멸치 등 다양한 수산물을 가공해 ‘바다가득히’라는 브랜드로 소비자들을 찾아가고 있다.

13명의 직원이 30여종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중소 유통시장 등 다양한 거래처는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시장에 진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완도바다식품은 문기경 대표의 선친인 고(故) 문제원 창업자가 1973년 설립했다. 미역가공에 주력했던 선친은 해조류를 이용한 아이디어 상품 개발에 강한 열정을 보였다. ‘무스프렐라면’이 선친의 아이디어다. 특허까지 등록했지만 상품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아이디어 만큼은 독특했고, 문 대표가 기업을 잇게 한 계기가 됐다.

당시 완도군수협에 다니던 그는 ‘아버지의 실험정신’을 이어받아 수협 내 툷창고를 개조해 가공생산시설을 갖추고, 툷·다시마·김·미역 등을 원료로 한 해조국수를 개발했다. 기존 국수가 밀가루 분말을 이용해 만든데 비해, 해조국수는 생 해조류 18%를 잘 갈고 섞어 면을 뽑아냈다. 같은 조리법으로 해조우동을 개발, 시장에 내놓자 순풍에 돛을 단듯 팔려나갔다.

해조국수 개발로 문기경 대표는 2001년 수협중앙회 ‘신지식인 1호’로 선정됐고, 2002년에는 해양수산진흥분야 대통령 표창을 받는 영광을 안았다.

그러나 완도군수협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문 대표도 수협을 떠나 2005년 현재의 가공공장을 짓고, ‘바다가득히’라는 상품 브랜드로 독자사업을 시작했다. 제2 창업이었다.

문 대표는 제품 원료로 완도 앞바다 수산물만을 고집한다. 또 예산의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 안전하고 차별화된 신개념 먹거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전통가공방식으로 ‘바린내를 제거한 천연 조미분말 제조방법’, ‘툷 추출액을 이용한 툷젤리의 제조방법’ 등 10개의 특허를 출원했다.

완도바다식품의 주력 제품은 해조국수와 건어물 선물세트다.

해조국수는 다시마국수, 툷국수, 미역국수 등 다양하다. 특히 지난 2011년 출시한 ‘해조 쌀국수(家 바로바로)’는 국내산 쌀에 완도산 툷·다시마·파래 추출물이 18% 이상 함유한 쌀국수로, 졸깃



완도바다식품이 완도수목원 입구에 문을 연 외식 프렌차이즈 ‘바다를 담은 먼’.

‘바다 가득히’ 브랜드 개발… 제2창업

10개 특허 출원… 지난해 매출액 32억

“3대 이어 100년 가는 기업 키울것”

졸깃하며 잘 퍼지지 않는 면발 덕분에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툷젤리도 대표 제품으로 꼽힌다. 툷 추출액으로 만든 젤리제조 기법은 특허 등록했다. ‘해조쌀국수(家 바로바로)’와 ‘밥(愛 뿌리랑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히트500’ 상품에 선정됐다.

2005년 제2 창업 당시 3억원이던 매출은 10년새 10배 이상 증가, 지난해 3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올해 목표는 35억원이다.

문 대표는 철저한 위생과 청결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는 “회사 모토는 올 바른 식(食)문화가 우리의 식탁에 그대로 스며드는 것”이라며 “올바른 재료와 위생, 만드는 이의 마음가짐 등이 모여 착한 먹거리를 만들고, 먹는 이의 식탁까지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식(食)문화”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완도바다식품은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완도수목원 입구에 카페형 프렌차이즈 ‘바다를 담은 먼’을 준공했다. 이 곳에서는 관광객들이 해조국수 제조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다. 생산·가공·판매가 어우러진 6차산업 현장이다. ‘바다를 담은 먼’은 부산, 경기 시흥, 경남 진주 등 3곳에 문을 열었다.

완도바다식품의 성공 비결 중 하나는 ‘다품종 소량생산’이다. 특히 2만 고객회원의 피드백이 제품의 질을 보완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했다고 한다.

‘3대가 이어 100년 이상 가는 기업으로 꾸리는 것’이 문 대표의 바람이다. 오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쟁력이 쌓이고 회사는 튼튼해질 것이라는 믿음에서다. /박정욱기자 jwpark@

코스닥 대약진… 증시 시총 상위 200위 중 33개

올들어 10곳 늘어… 바이오 기업 약진 두드러져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200대 종목 중 코스닥 상장사가 33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10곳이 늘어났는데, 특히 바이오 기업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7일 현재 시총 상위 200대 종목(우선주 제외) 중 코스닥 기업은 33곳으로 16.5%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말보다 10곳 늘어난 것이다.

코스닥 기업 중 시총이 가장 큰 ‘대장주’ 셀트리온은 시총 26조8394억원으로 국내 증시에서 시총 7위를 차지했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11조145억원) 32위, 신라젠(6조5171억원) 51위, 티슈진(3조6469억원) 79위, CJ E&M(3조5750억원) 80위, 로엔(2조8327억원) 95위, 바이로메드(2조6791억원) 100위 등 100위권 내 코

스닥 기업은 7곳에 달했다. 작년 말만 해도 셀트리온의 국내 증시 전체 시총 순위는 22위에 불과했다. 100위권 내 기업도 카카오(48위), CJ E&M(78위), 메디톡스(100위)까지 4개사에 그쳤다.

올해 코스닥 기업의 시총 순위가 이처럼 약진한 이유로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가파른 상승세와 함께 ‘대어’로 꼽히는 바이오 기업의 연이은 신규 상장 영향 등이 꼽힌다.

실제 작년 12월 코스닥에 입성한 바이오 벤처기업 신라젠, 올해 7월의 셀트리온헬스케어, 11월의 티슈진이 코스닥 시총 2~4위를 차지하고 있다.

신라젠의 경우 상장 첫날인 지난해 12월 6일 주가가 1만2850원이었지만 이날 17일 현재는 9만8000원으로 6.6배 넘게

급등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의 국내 전체 증시 순위는 작년 말 206위에서 51위로 도약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상장 석달여 만에 32위를, 티슈진은 상장 10여일 만에 79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 외에도 시총 순위가 급등한 코스닥 종목에는 셀트리온제약(220위→117위), 바이로메드(124위→100위), 에이치엘비(303위→160위), 제넥신(217위→187위) 등 유독 바이오·제약주가 많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반의 ‘IT 버블’ 사태처럼 바이오주에도 거품이 대거 꺼지듯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코스닥 시장은 일부 종목의 실적 개선과 함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연금의 코스닥 비중 확대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근 급등세를 보였다. /연합뉴스



구레단감 16.4t 두바이·말레이시아 수출

농협전남본부·구레농협, 상차식

구레에서 생산된 단감이 NH농협무역을 통해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이흥목)는 20일 구레농협산지유통센터(APC)에서 구레농협(조합장 조재원)과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레단감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남농협과 구레농협이 지난해부터 배·단감을 주력 수출품목으로 선정하고 수출전문조직을 육성, 물량확대에 주력한 성과다.

이날 단감 16.4t이 두바이·말레이시아로 수출됐으며, 농협은 연말까지 200t 수

출을 목표로 물량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농가 생산·지도관리를 꾸준히 펼치는 등 농민들의 판로 걱정도 덜어주고 있다.

이흥목 본부장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수출조직의 규모화와 전문화가 필수”라며 “배·단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선도수출단지를 육성하는 등 아낌없는 지원으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4050세대도 김치 사 먹는다

티몬, 소포장 매출 97% 증가

온라인쇼핑사이트 티몬이 자사 김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김장철인데도 완제품 소포장 김치 매출이 9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티몬에 따르면 지난 10월 1일부터 이날 19일까지 완제품 포장김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g단위로 판매하는 소포장 김치의 매출 성장률은 97%에 달했다.

소포장 김치를 중량별로 구분해 보면

400~500g 제품의 비중이 40%로 가장 많이 판매됐고, 이어 100~200g이 35%, 100g 이하가 12%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판매되는 김치 종류도 배추김치가 5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총각김치(12%), 맛김치(6%), 묵은지(5%), 열무김치(4%), 파김치(4%), 갓김치(3%)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완제품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연령대는 40대가 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30대 34%, 50대 14%, 20대 13% 등이 뒤를 이었다. 40대와 50대의 구매 비

중이 50%에 달한다.

티몬은 이런 결과가 집에서 직접 김치를 담가 먹는 세대로 인식되는 40대도 이제는 김치를 사 먹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완제품 포장김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최근 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서 발표한 4인 가족 기준 배추 20포기 김장비용은 전통시장 22만4160원, 대형마트 24만5340원이었다. 반면 티몬에서 완제품 포장김치 20포기(약 50kg)를 구매할 경우 16만7500원인데, 쿠폰할인까지 적용하면 15만2500원으로 김장김치보다 32% 이상 저렴하다고 티몬은 강조했다. /연합뉴스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209, 209-1번지-답 203평 147-4, 11번지-대 231평 147-15번지-전 83평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매매 - 8억7천7백만원 (평당 170만원)

공산면, 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1층,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도로접함
- 혁신도시에서 10분거리
- 매매-5200만원(조정가)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9억9천6백만 (평당 70만원)

비금도, 팻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단독섬, 무인도, 향후가치 100억
- 매매 - 14억 (타 부동산 교환가)

콘도 / 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2013년 준공)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55억

거문도,펜션부지

- 여수시 삼산면 서도리 1261-1
- 토지 49평, 계획관리지역
- 도로접, 코너, 전망좋은
- 매매 - 4900만원 (조정가)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15층, 15평
- 전망좋은, 주거겸 사무실
- 내부울수리, 즉시 입주가능
- 매매 - 3,800만원(조정가)

중동,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
- 6층중 4층 전체, 210평
- 시세/감정가 - 13억, 전망좋은
- 모든업종 오픈가능
- 매매 - 8억 3천만원

주인직매 010-3605-5000